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새가족 환영, 다채롭게 진행

2월 23일(다음주) 4부예배 후 갈릴리홀서
2개월 간격으로 등록자 순번대로 실시하며
교회 현황 비디오도 소개하고, 소속기관장에 인도

교회는 교구별로 실시해 오던 새가족 환영회를 금년부터는 교회 차원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23일(다음 주 일) 4부 예배 후에 갈릴리홀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새가족 환영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새가족을 맞아 들이는 입장에서 따뜻하고 정성 어린 환영회로 참석자들이 진정으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환영회를 통하여 새가족들이 충현교회에 빨리 적응하여 바르게 성장하는 기틀이 되기 때문에 환영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기존의 교구별 환영회는 대부분 새가족을 소개하고 선물을 주고 하는 정도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환영회를 보다 환영회답게 하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환영회 분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교회의 어른인 장로들과 교역자들이 참석하고, 교회 소개 비디오를 보며 교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기도 하고, 교구장 및 교구 지도교역자,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장 및 지도 교역자를 소개하여 새가족이 자기의 소속과 해당 부서에 관심을 갖도록 했다. 또한 환영의 특별찬양을 독창, 기악합주 등으로 준비하고 새가족들 중에서 충현교회에 대한 소감 등을 듣는 순서도 갖게 된다.

또한 해당 교구에서 새가족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교구별로 기념촬영도 하여 새가족들이 환영회를 오랫동안 기억할



▲ 지난해 교구 '새가족 환영회'의 한 장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한마디로 새가족 환영회를 새가족 입장에서 잘 배려하여 실시하게 된다.

교회는 앞으로도 새가족 환영회를 두 달에 한번씩 하기로 했다. 이번 환영회의 대상자는 1996년 12월 22일부터 1997년 2월 9일까지의 등록한 새가족 전원이다.

다음 주일에 실시할 새가족 환영회의 개요 및 시간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일시: 1997년 2월 23일 (주일) 4부

예배를 마친 후

· 장소: 갈릴리 홀
· 참가대상: 교구장 및 지도 교역자, 해당 부장 및 지도 교역자, 지역장, 담당 구역장, 새가족부 교사, 96년 12월 22일-97년 2월 9일에 등록한 새가족 전원이다.

· 새가족 환영회 진행 순서
1. 충현교회 소개 및 비디오 상영
2. 교구장, 교구 교역자,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부장 및 목회자 소개
3. 새가족 환영송
·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 특별 찬양 - 독창 - 차문수
현악 4중주
4. 새가족 환영식 한마디 (환영회에 참석한 새가족 중에서)
5. 교구별로 환영 선물 증정(교구별 기념 촬영)

경찰전도회 모임

2월 16일(오늘) 오후 3시 칼빈홀에서

새롭게 전열을 정비하고 출범하는 경찰전도회(회장 이갑재 장로, 지도 김희수 목사) 모임이 오늘(2월 16일) 오후 3시 칼빈홀에서 모인다.

오늘 모임에서는 임원 인준 및 사업 계획서 확정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임직원 및 관심있는 성도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베드로연합회

특별기도회

베드로연합회(회장 김정환 집사)는 오는 2월 21일(금) 금요일에 참석 후 오후 11시부터 충현기독교원에서 특별기도회를 갖는다.

이번 기도회는 새로 구성된 임원들이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변화받고 영적으로 재무장되어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강사는 전도위원회 지도 목사인 장정철 목사이다.

베드로연합회 산하 각 지회 임원진(지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은 전원 참석하기를 바라고 있다.

22-23일 갈릴리홀서

장년1부 겨울수련회 개최

강사 박형용 목사

오는 2월 22일(토)과 23일(주일) 장년 1부기 겨울수련회를 개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성한 분량을 채우자'라는 주제로 모이게 되는데 22일(토)에는 오후 3시부터 갈릴리홀에서, 23일은 오후 12시 30분부터 교육관 407호실에서 모인다. 강사는 장년1부 지도인 박형용 목사이다.

기독교TV에서 방영한

'아름다운 우리교회' 비디오 테이프 판매

전도용, 선물용으로 적합, 1개에 8,000원

지난 1월 25일(토) 오후 10시부터 기독교TV(Ch. 42)를 통해 우리 교회의 지나온 과거와 현재의 각 부서 활동을 담아 '아름다운 우리교회' 프로그램에 방영된 내용이 비디오 테이프로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 내용은 우리 충현교회를 1시간 동안 영상으로 소개한 것이어서 전도대상자 또는 우리 교회를 알리고 싶은 친지들에게 선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이나 새신자들에게 보여 주어 우리 교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값은 60분짜리 1개에 8,000원이며 테이프보급소에서 판매한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충현교회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 학습, 세례식

교육 및 문답받은 학습, 세례 대상자는 필히 참석해야

오늘(2월 16일) 저녁 찬양예배시 금년 들어 첫번째로 시행하는 학습, 세례식이 있다.

금년부터 학습, 세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습, 세례식도 온 교우가 모인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갖게 됨으로 온 교회의 관심 속에서 수세자들에게 큰 격려

와 바른 결심을 갖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교육 및 문답을 받은 학습, 세례 대상자는 저녁 찬양예배 시작 30분 전에 나와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한다.



중헌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환난 중의 신앙고백

(시편 42:1-11)

시편 42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고라라고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레위 자손 가운데 중책을 맡았던 일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던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물리치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겠다고 계획을 도모하던 중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땅이 갈라지는 무서운 재난을 만나 땅 속으로 들어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자기들의 죄를 울면서 안타까워하는 신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 남은 고라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다하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을 잘 받들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집의 찬양대를 담당했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시편을 기록한 때는 다윗 왕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다윗 왕이 도망할 때였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이 도망갈 때 찬양대에 있던 고라 자손이 그 뒤를 따릅니다.

"나는 아버지를 죽이려는 짐승만도 못한 세력이 아무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 왕을 죽도록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그들이었지만 요단강을 건너고 헤르몬산의 높은 산기슭으로 도망을 다니면서 점차로 마음에 낙심이 생겼습니다. 중심이 흔들리고 원수를 보니까 겁이 났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말합니다.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살아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라"

이와 같이 자신에게는 권면을 하고 하나님 앞에는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지은 것이 시편 42편입니다.

1. 영적 사망에서의 기도가 어떠합니까(42:1-5)

(1)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다

사슴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평화롭게 있을 때에 포수가 활을 가지고 그 사슴을 쫓고 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놀란 사슴이 깜짝 놀라 언덕을 넘고 폐탈길을 들어가면서 땀을 흠뻑 흘리며 도망을 갑니다. 포수가 쫓아 오지 않을 때에 사슴은 안심을 하며 목마른 것을 생각하고 안타깝게 시냇물을 찾습니다. 그때 풀을 찾는 사슴의 마음이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다윗 왕의 폐난길에 따라나선 고라

자손을 포수보다 더 무서운 압살롬과 그 무리들이 활을 가지고 따라올 때 죽을 힘을 다하여 도망을 가다 보니까 목이 말랐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그렇고 영적 사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림습니다. 생수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살겠습니까.

갓난 아기가 배고파서 엄마를 찾으며 울 때에 갓난 아기에게 무엇을 주어 위로할 수 있습니까. 엄마의 품 안에 안겨 젖을 물리는 것만이 그 아기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이와 같이 도망가는 고라 자손은 오직 하나님의 품을 그리며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뜨뜻미지근한 기도가 아니고 사슴이 땀을 흠뻑 흘리며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2) 성전에서 찬송하게 하옵소서

고라 자손은 기도를 하되 언제 궁궐로 돌아가서 호의호식할 것인가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서 돌아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찬송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3) 하나님의 이름이 천대를 당하니 역을합니다

고라 자손들은 자기들이 천대를 받는 것은 상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조롱하는 악독한 무리들을 보며 역을해 합니다.

도망을 다니는 몸도 피곤하고 위태로운 것을 생각하면 마음도 괴롭지만 그러나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못한 백성들에게 천대를 당하는 일입니다.

이전에는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지도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권도를 하고 인도자 노릇도 했는데 도망을 나오니 그들이 모두 원수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찬이 찬송을 부르던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까워 울부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 품에 힘이 납니다. 품은 베흥 도망을 다니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지경에 있었지만 마음에는 천국에 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악한 사람을 저주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탄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목마른 사슴이 간절히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같은 간절한 기도로 구역을 돌보며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는 힘을 얻어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만 우러러보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원수는 도망을 가고 우리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니다.

성도는 고라의 자손과 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자신의 영혼을 권면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2. 환난 중의 신앙고백이 어떠합니까(42:6-11)

고라 자손은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합니다. 고라의 자손은 다윗 왕을 따라 도망갈 때 요단강을 건너고 높고 험한 헤르몬산 기슭으로 숨어 다니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떠오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권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심판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고라의 자손은 도망을 다니면서 들리는 폭포소리와 물결소리조차도 그들을 배운 것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와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는 원수들이 패배할 하나님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한 원수들이 손을 뻗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영혼이 소생하여 힘이 생기니 닢에는 찬송을 부르고 밤에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를

이것이 신자의 생활입니다. 즐거운 일을 만날 때라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부르고 어려운 때에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라의 자손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 가운데도 원수들은 계속해서 조롱을 합니다. 길로 뺨을 찌는 것같이 아픕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하면 안됩니다. 인생은 약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 비슷한 기도를 하고 싶을 때도 있으나 하나님의 권능을 확실히 믿으면 원망 대신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죄값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고라 자손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고라 자손이 부른 찬송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목마른 사슴이 간절히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같은 간절한 기도로 구역을 돌보며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는 힘을 얻어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으면 원수가 밟지 않고 붙잡혀잡니다. 우리는 원수를 붙잡히 여기는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생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 개 숫자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일천만 이상의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몇 명이나 있을까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형식적으로나 관념적으로야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인 그리스도와 의 만남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함으로써 말미암아 그 자신의 전 존재가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변화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일상 생각하는 것과 같이 도덕적으로 좀더 착해지거나, 좀더 많은 선행을 하게 된다는 것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굳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그 존재 자체가 변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 훌륭한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교인이 곧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생사를 같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에 대해 자기는 죽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기신 것을 인정하고 기도를 하며 도움을 구하기도 하지만 교회문을 나서면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되어진 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으로서의 짠 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빛의 삶을 온전히 살아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수많은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알려진 여러 가지 부정부패의 사건에 기독교계의 지도층, 그리고 소위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포함되어 있는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합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일들에 동참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다시 한 번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 칼럼 / 역삼동에서 ▶

참된 그리스도인은

김재철
(목사, 10교구 지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Coram Deo)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내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오래 다닌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야기되는 심각한 문제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님의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나름대로 결심도 하지만 성경을 덮고 교회를 벗어나 세상의 삶으로 돌아오면 교회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려면 이 세상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은 별개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식사할 때 기도하는 시간을 제외하고서는 전혀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 살며 생각하며 ▶

다시 한 사람의 표류자로

김현자
(12교구, 장년3부 교사)



길 개 살아봐야 저의가 100년이 채 못되는 인생이다. 하지만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나누어 주시고 이를 지켜보시는 주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과연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타종교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야 할 점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한다. 주신 삶을 회회하지 아니하고 끝끝내 아름답게 바칠 수 있어 비로소 주님의 백성이라 자처할 수 있을 것이다.

연말과 연초가 되면 또 다른 정리와 출발의 의미가 마음에 잔잔히 부딪혀온다. 아마도 이런 기회란 주께서 내로 하여금 지난 세기를 되돌아보며 뉘우침과 더불어 새로운 각오를 중용하시려 만드신 것 같다.

엘렌에게 뛰는 작업원들, 가정을 꾸리는 평범한 주부, 또는 공부하는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각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변하여 빛과 소금에 되게를 원하시는 주님께 아내세던가. 물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범주라면 세계사를 움직이는 분들도 계시겠고, 인류의 번영을 위해 개지팡이를 추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어진 몫을 행하는데 있어서는 굳이 그 한계를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믿음의 명기 삶에

열심히 뛰는 자에게는 한결같은 주님의 축복이 내려지리라 믿는다.

그러나 역시 불완전한 것이 인간인지라 나는 신념과는 달리 갖가지 부침으로 인해 한 해의 마감에 예년과 똑같이 부끄럽게 되었다. 그저 주 앞에 서면 한없이 작고 초라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는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있을 뿐이다.

"애초의 소원은 이것에 아니었는데"라는 각성은 신학을 마친 후, 새로운 임지로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실상 잠재 본교회를 떠나면서 아쉬움에 어지간히 지달렸었다. 주께 받은 것에 없으려 불사로 애어지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었으나 인간적인 갈등에 있을 수 없었다. 우선 내 애상 뉘우침에 별반 존재하지 않아 그리스도인으로 연연하던 내게 이 중현교회를 키워오신 김창원 목사님은 정신적으로 애미 어찌어 같은 위치에 계셨었다. 많은 선도들 속에 당신께서 나를 아실지도 의문에게나와 그분들 인간적인 교회가 없을 리 없겠으나 그분께 보여 주시는 신앙적인 모습에서 나는 주께 딱하고 사뭇하신 삶을 나름대로 수대 접하며 이에 의존해 있었다. 따라서 이 그들을 벗어나 스

스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자가점점이 참으로 고통스러웠다.

뿐만 아니라 그간에 나를 서있게끔 도와 주신 교우들의 보살핌이 또한 떠남에 있어 장애가 되었다.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는 분들이 끈고한 내 삶속에 슬며시, 혹은 힘차게 찾아들어와 당신들의 화평을 나누어 주시지 않았던가. 이런 면들을 전부 내가 주께 받은 것들로 정의하며 되갚기 위해 떠남다는 생각으로 굳히기까지 솔직히 고백하자면 내 곁에는 주님 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무수한 밤들이 함께 뱃했다.

그런데 임지에서 나의 뜻밖의 좌초를 겪어야 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빌어 단지 자신들의 생계를 꾸려가고자 하는 이들로 인해 충격을 받기도 하였으며 심적으로는 주님과 교회의 사면이즘의 일환으로 전락하는 병폐까지도 두 눈을 똑똑히 뜬 채 바라보아야 했다.

이것은 차라리 나았다. 더욱 괴로웠던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그들을 어떻게든 빠져서 놓지 못하고 그제 방관자의 입장에 서게 된 내가 문제였다. '내가 젊고 우렁찬 목소리로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내뿜을 수 있는 내 생이 길게 남아 있다면'이라는 바람에 오직 병들고 노쇠한 내 육신 속에서 분노를 따름이었으니, 자련의 강력한 힘은 그렇게 나를 비웃었다. 내 외침에 다만 공허한 노인의 뒷두리로만 들렸을 그때 들을 위해 나는 주 앞에 내 약함과 더불어 그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올려야 했다.

그리고 이후, 나는 충현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렇다고 하던 일 전폐하고 지친 육신만을 이끌고 왔다는 뜻은 아니다. 주님을 향한 맹세가 있었으려 그들을 피해 다른 한 곳에 조심스럽게 밀알 한 개를 숨겨 놓았다. 이는 세나 실익 등과는 전혀 무관한, 단지 나와 같이 고독하게 유리된 자들을 위한 집합소이자 그리하여 주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안하는 장소이다. 아직 채 싹도 틔우지 못했으니 내게 생기가 남아 있는 한 부지런히 토양을 가꾸고 내 스스로 거름이 되고자 결심해 본다.

다만 앞서도 말했듯 내 부족함을 실감한 이상 적을 둘 곳이 있어야 하므로 내 신앙의 모태가 되어준 고향을 찾은 셈이다. 다시 와보니 훌륭한 분들이 주님 주신 이 기업을 일구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었고 나는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었다. 떠남에 대해 아무 것도 묻지 않고 반겨 주는 교우들에 계심에 더욱 감사했다.

나는 그분들 곁에서 또 다시 열심히 공부하며 배우기를 백의종군과 같이 하고자 한다.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생'이란 늘 시작엔 것 같다. 과정이 없으면 회개가 따르고 그 이후에는 또 다시 깨어남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보면 신앙인으로서의 내 삶은 결국 죽는 날까지 도달해야 할 정점을 염원하는 데서 그치는 표류자의 그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을 때 나의 항해는 결코 두렵지 않다.

찬미 예수!

그러므로 나는 도저히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토막소식

▶ 청년1부에서는 오는 2월 21일(금) 10시 20분부터 선교관 102호에서 전체 기도회를 실시한다. 또한 2월 28일과 3월 1일 이들 동안에는 각 팀별로 일일수련회도 갖는다. 청년1부에는 8팀 40개조와 새가족팀 20개조가 있는데, 회원들은 이런 모임을 통하여 영적으로 늘 깨어 있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회원간에 아름

충현복지관 직원 모집

모집부문:

1. 경리직(유경험자 우대)
2. 관리직(전기 및 보일러 기사)
: 관련 면허 소지자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접수마감: 1997년 2월 21일

접수 및 문의
564-4885, 562-0548

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다.

▶ 장년3부에서는 오는 3월 23일 찬송가부르기대회를 실시한다. 지정곡은 408장으로 회원들이 열심히 준비하여 은혜로운 대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 탁아부에서는 오는 3월 11일(화) 교사기도회를 갖는다.

▶ 새가족부에서는 오는 처별 찬송가부르기대회를 실시한다.

▶ 임마누엘찬양대에서는 오는 2월 21일(금) 오후 10시 충현기도원에서 임원기도회를 실시한다.

▶ 선교위원회에서 <'97선교충현>과 선교사별 기도카드를 제작하여 선교위원회실(선교관 405호)에서 배포한다. 원하는 사람은 선교위원회실로 가면 구할 수 있다.

충현전도부 훈련 위한 모임

오늘 3시 30분 베다니홀에서

전도위원회에서는 오늘 오후 3시 30분에 베다니홀에서 충현전도부 훈련을 위한 모임을 갖는다. 충현전도부에서는 금년에는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전도 방법을 모색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오늘 모임은 이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루디아전도회와 에스더전도회 지회장과 부지회장은 모두 참석할 것을 바라고 있다.

충현복지관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Group Home) 입주 감사 예배

충현복지관에서는 지난해 정신지체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기능훈련과 지역사회 거주를 통한 사회통합으로 자립의 기회를 다져 독립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였다. 올해 복지관의 사업들을 확장하는 가운데 정신지체인들의 재화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가구를 신설하였다.

1가구는 기존의 생활관 개념과 동일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으로서 이제 2가



에 남·녀가 각각 4명씩 한 조가 되어 2개월씩 들어가 생활훈련을 받게 된다. 또 다른 1가정은 영구 입주 가정으로서 4명의 훈련생들이 영구적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곳이다.

이제 기존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에스더의 집'이라는 명칭 아래 여자 훈련생들의 생활관으로 운영하며, 새로 신설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다니엘의 집'으로 남자 훈련생들의 생활관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한번 입주하여 영구적으로 생활하는 다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는 달리 4명씩 한 팀을 이루어 두달씩 교대로 생활하게 된다. 따라서 1년 동안 복지관의 모든 훈련생들이 교대로 돌아가며 생활교육을 받게 된다.

또 영구적으로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은 4명의 입주자 중 연장자의 이름을 따서 '태영이네 집'으로 불리며 4명의 남자 훈련생들이 영구 입주하여 성인 공동생활을 경험하고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2월 11일(화) 입주한 훈련생들과 학부모, 복지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홍성 목사의 인도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입주 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이홍성 목사는 이제 충현교회를 통해 장애인 복지사업이 확장되는 것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며 그것을 믿으며 맡겨진 사역을 담당하며 충성하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전하였다. 또 공동생활가정 담당 교사들에게 모든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생애 앞에 담과 눈물을 흘리는 것이 필요하며,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며 믿음으로 감당할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당부하였다.

주간충현(계간충현)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간충현(계간충현)에서는 보다 더 감동적이고 친근한 신문으로서 한 걸음 더 모든 독자들에게 나아가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생생하고 주옥같은 원고를 모집합니다. 혼자 가슴 속에 묻어두기에는 아까운 산 체험과 소중한 이야기들을 주저하지 마시고 주간충현(계간충현)으로 보내주시시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 원고종류 / 간증, 수필, 시(동시), 제언, 일기, 서간문, 사평, 이런 일은 고침지다, 각 부서 소식, 만평, 소설(동화), 콩트, 기타

2. 원고마감 / 주간충현은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시사성이 있는 원고나 뉴스 종류는 게재될 전 주일 찬양예배 전까지이며, 특별한 경우는 수요일 오전까지 보내주시시오.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뉴질랜드 김형선 평신도선교사

새해를 맞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충현교회와 원로목사님을 비롯한 담임교역자님들, 장로님들, 세대적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위원장님을 비롯한 실행위원님들과 기도위원님들,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충현의 온 성도님들께 재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리라 믿습니다.

제난 한해 동안도 뉴질랜드 충현교회와 부족한 저희 가족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곳의 형편을 고려하시어 적시에 목사님을 파송해 주셔서 교회가 점차적으로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봉절주야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목사님 가정도 주님의 은혜로 빠른 정착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온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애당초 기도

해 온 결과 2월 첫째주일부터는 새로운 예배 처소로 이전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쉬게 하고 계도로 후원해 주신 충현의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부족한 저희 온 가족이 더욱 겸손히 성실하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재화들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게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마음의 평정과 생활의 형통함은 물론 승리하고 성공하는 복이 충현교회와 개인과 가정마다 임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제목>

1.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에우를 섬기는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로 쟁쟁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2. 담임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3. 현지인 교회와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4. 모든 성도들이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게 하시며 부름을 위해 일할 선한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5. 뉴질랜드를 축복하사 다수 민족이

사랑으로 잘 조화된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하시고 다양한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6. 온가족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자녀들의 학업에 더욱 발전이 있게 하옵소서.

뉴질랜드에서
김형선 · 한영자 집사 올림

▼ 금요기도회의 모습.

